

용수 스님의 5분 명상

나도 우주도 네 편이야

친구야, 걱정하지 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훨씬 더 똑똑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훨씬 더 훌륭해. 고통은 숙명이 아니야. '운이 다했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야.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 너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경험하는 고통이 그 무엇보다 힘들게 생각되겠지만 언젠가는 지나갈 거야. 네가 방향을 다시 찾으면, 그 때 모두 없어질 거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길 말고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가. 삶과 너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맞춰 봐. 그러면 기쁨과 총명한 머리가 다시 살아나. 그리고 걱정 마. 나도 우주도 네 편이야. 힘내 친구야. 응원하고 있어.





김종미 교수의 차와 사람을 잇다 ③ 무이암차

천년 바위에 스민 백가지 꽃향기

세계 자연유산인 중국의 무이산은 천년 동안 황실의 다원으로 보존되어 온 곳으로, 차나무의 고향으로 불릴 만큼 좋은 차나무가 나는 곳입니다. 선인(仙人)들의 수련터라고도 불리는 무이산은 많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암석들 사이에서 자라는 차나무를 무이암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이암차에는 천년 바위가 지닌 기운과 향 등 다른 차나무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천년 바위와 함께 살아온 무이암차의 맛은 어떤 맛일까요?

맛과 향 등 차(茶)의 우수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식지의 환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흙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이산의 흙은 특별합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보호하고 있는 단하암층의 붉은 사암입니다. 무이산은 퇴적층의 침식과 융기작용으로 풍경이 독특하고 수려합니다. 서른 여섯 개의 산봉우리가 연달아 이어지며 아흔아홉 개의 기암절벽이 절경을 이룹니다. 이 단하암층의 바위 사이사이에서 무이암차나무가 자랍니다. "바위마다 차나무가 있고, 바위가 없으면 차나무도 없다(岩岩有茶,无岩不茶)"고 할 만큼 무이산의 차와 바위는 하나의 몸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찻잎으로 만든 차는 폴리페놀,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무이암차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영양성분은 붉은 사암에서 끌어올린 광물질입니다. 차나무 뿌리가 단하암층의 풍부한 광물질을 흡수하여 영양학적으로 인체 세포에 꼭 필요한 칼륨, 불소, 칼슘, 마그네슘, 철분, 인, 아연 등 미량 원소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흙과 더불어 무이산의 물 또한 특별합니다. 붉은 사암 동굴을 통과해 내려온 계곡물이 굽이굽이 아홉 계곡을 따라 맑고 청량하게 흐릅니다. 아침에 안개가 피어오르면 계곡 사이에 가득 차서 잘 흩어지지 않습니다. 일교차가 크고 운무가 발달한 곳에서 자란 차는 그 맛이 달지요. 무이산의 구곡계는 몽환적인 색채를 더하며 찻잎에 달콤한 이슬을 꼭꼭 채워 넣습니다.

천년 바위 기운 향 등 특별함
단하암층 풍부한 광물질흡수
300번 흔들어 꽃향을 터뜨려

무이산은 문화적으로도 특별한 곳입니다. 오랜 옛날부터 선인(仙人)의 수련터였습니다. 신선의 땅이라고 해도 어울렸지요. 당나라 현종은 무이산에 매료되어 어업도 금지하고 벌목도 금지했습니다. 무이산의 어떤 힘이 그토록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모르지만, 황제의 명령이 천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송 · 원 · 명 · 청 시기에는 황실에 차를 공납하는 어차원이었습니다. 또 주희(朱熹, 1130~1200)가 무이정사를 짓고 성리학을 완성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주희는 잠깐 관직에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평생을 무이산에서 살았습니다. 굽이굽이 아홉 계곡을 돌아 맑은 물이 흐르며 산수가 수려한 이곳에서 흥이 나면 배를 타고 시를 지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무이산에서 자라는 무이암차.

무이암차에는 바위의 에너지가 꽉 찬 맛, 그래서 "암운이 감돈다, 묵직하다, 바디감이 풍부하다"고 말합니다. 차의 경전이라고 부르는 〈다경(茶經)〉에는 "란석에서 자라는 차가 최상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이암차는 특별한 바위에서 특별한 물을 마시고 특별한 대접을 받으며 자랐으니 '차의 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와 사랑〉의 주인공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를 합쳐놓은 것처럼, 무이암차의 특징은 암골화향(岩骨花香)입니다. 바위의 바탕에 꽃의 향기, 이 아름다운 차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천년 바위에 꽃향기 스민다. 무이암차의 꽃향기는 어디서 올까요? 바위에 꽃향기를 앉히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태생적인 꽃향기입니다. 무이산은 지구상에서 아열대원시림이 가장 잘 보존되어온 원생태 지역입니다. 유네스코 전문가집단의 조사에 의하면 총 3728종의 식물이 자란다고 합니다. 골짜기마다 수백 가지 꽃이 피고 약초가 자라서 공기 중에 이미 신선한 꽃향기와 약초향기가 스며있습니다. 차나무는 주변의 향기를 먹으면서 자랍니다. 무이산에서 나는 차는 어떤 향과 맛일지 상상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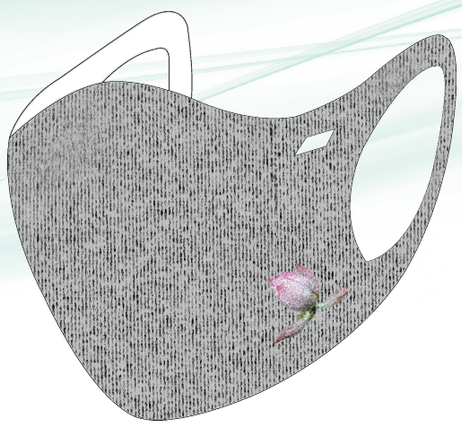
무이암차의 꽃향기를 극도로 증폭시키는 것은 '흔들림'입니다. 흔들리는 청춘 시기를 지나야 꽃향기를 품어냅니다. 무이산의 찻잎은 흔들림의 과정을 거칩니다. 한 잎 한 잎 대나무 채반에 펼쳐진 찻잎은 300번 흔들립니다. 12시간 동안 흔들어 줍니다. 푸른 잎 주변이 흔들린 상처로 붉어져서 홍엽이 될 때, 비로소 잎 속에 숨어있던 향기분자들이 터져 나옵니다. 흔들고(요청) 비비고(유념)를 반복하는 것은 우롱차를 만드는 기법입니다. 무이암차는 우롱차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숯불 위에서 장시간 탄배 과정을 거쳐서 명차 중의 명차로 불리는 무이암차가 탄생합니다. 바위 에너지에 백가지 꽃향기, 난향, 계화향, 복숭아향, 우유향을 뿜어내는 암골화향의 무이암차가 됩니다.

"나는 원래 무이암차를 좋아하지 않았어. 너무 진해서 약처럼 보였지. 어느 가을에 무이산에 놀러갔다가 만정봉 천유사에서 스님이 우려 주는 차를 마셨네. 찻잔은 호두만하고 찻주전자는 귤만 하고, 따라봐야 겨우 한두 잔 나오는 크기인데, 차 한 잔을 마시니 황홀하여라. 목에 차가 넘어가기도 전에 향기가 먼저 폭발하더니 입에 착착 달라붙으면서 달고 달기가 끝이 없더라. 무이암차가 옥구슬이라면 다른 차들은 수정구슬임을 알겠더라. 품격이 다르더라."(청나라 대표 시인 원매(袁枚), 〈수원식단〉)

차도 흔들리는 시기를 지나야 향기를 품습니다. 흔들림은 천년 바위에도 꽃향기를 불어 넣습니다. 귀공자로 태어난 무이암차는 흔들림을 거치고 매운 숯불 연기를 쐰 다음에 비로소 암골화향의 명차가 되었습니다. 무이암차의 4대 명차로는 대홍포, 철라한, 백계관, 수금귀가 있으며, 무이암차의 대표 품종은 수선과 육계입니다.

〈잇다it茶 대표〉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KOVI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FDA 등록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